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춘 심/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청소년상담실

원하지 않는 임신

Q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입니다. 2학년이고 시골에서 사는데요, 어제 같은 동네에 사는 여자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오라고 해서 갔더니 다른 여자 아이 2명과 같이 있었어요.

놀다보니까 밤이 깊었고 여자 아이들은 더 놀자고 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게 된 게 카드 놀이 거든요.

카드놀이를 하면서 벌칙으로 게임에서 짐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로 했어요, 여자 아이들이 차례로 게임에서 지나니까 스스럼 없이 옷을 벗기 시작했고 그 순간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별로 다른 느낌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여자아이들은 이미 다 벗은 상태였고 게임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 한 여자 아이가 재미있는 비디오가 있다고 하면서 비디오를 틀었어요. 비디오에는 남녀가 함께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야하게 나오는 일종의 포르노 비디오였고 저는 그 여자아이들이랑 돌아가면서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었고 그 상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디오를 보는데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인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부끄러운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들을 좋아한다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다른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애랑도 성관계를 해 본적이 있는데 어제 같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 여자아이들이 혹시 어제 일로 임신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A 비디오를 가지고 와서 함께 즐겼다는 것 자체부터가 자기들끼리 미리 사전에 준비된 철저한 각본이었고 또한 그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도 예상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에 대한 그 모든 것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리라 여겨집니다. 모든면에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신체적인 성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그에 맞게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마음이 불편한 일이니 무책임한 행동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여 임하시길.....

일상적인 생활도 체크해가면서 마음을 터놓고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뭔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여행을 통해서

부부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자위행위

Q 저는 38살의 남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짜리 딸아이가 있고 아내는 학원에서 일어를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3년 전 우연히 아내의 자위행위를 보게 되었고 그 때는 내가 보았다는 것을 아내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평소 30분 정도의 부부관계를 비아그라 같은 약도 조금씩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1시간 이상, 어떤 경우에는 3시간 이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우연히 낮에 시간이 생겨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서비스 판매직이라 평소에 일하다가 지치면 가끔씩 집에 들르기도 합니다. 어제도 시간도 있고, 몸도 피곤 해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아래층 입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아내의 자위행위를 다시 보게 되었고 아내는 보통 성기보다 3배나 커 보이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에 삽입시키려 했습니다. 쉽게 삽입이 안되니까 무언가를 바르고, 그 이상한 물건은 쉽게 삽입이 되었습니다. 아내 모르게 지켜보다가 아내가 나가버린 후 그 이상한 물건을 찾기 위해 옷장을 뒤졌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고 이상야릇한 속옷들이 나왔습니다. 거의 몸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속옷들이었고 평소 잠자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아내는 치마를 즐겨 입는 스타일이 아니며 입더라도 아주 긴 스커트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치마를 자주 입고 또한 그 치마라는 것도 바람이 불면 그 안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옷만 입습니다. 여자가 자위행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지나 싶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고 모든일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A

굉장히 놀랍고 당황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남편의 입장과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여성도 남성처럼 자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욕구는 남성·여성 모두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성이라는 문제와 결부되었을 때 사회적인 통념상 “여자가”라는 식의 생각이 우리들의 고정된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는 부인의 일상적인 생활도 체크해가면서 마음을 터놓고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여행을 통해서 부부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생활이 즐거웠으면 합니다. **PPPK**